



중국,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 설립 추진

최근 중국 정부는 상장 대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융지원이 소외되었던 창업기업이나 신흥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(Growth Enterprise Market)을 연내 설립할 계획임.

- 최근 중국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들의 신규주식상장(IPO)이 연기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현 시점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주식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설립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음.
- 중국 정부는 선전(深圳)증권거래소 산하에 창업기업이나 신흥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미국 나스닥과 유사한 Growth Enterprise Market(GEM)로 불리는 전용시장을 설립할 계획이며, 빠르면 올 5월초 첫 신규주식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표함.

〈표〉 주요국의 중소기업 전용시장 현황

거래소(설립연도)	상장수(개)	시가총액(억달러)	수익률(%)
Hong Kong GEM(1999)	193	207	10.0
London AIM(1995)	1,694	1,940	5.1
Nasdaq SmallCap(1990)	3,516	—	—
Singapore Catalist(1987)	160	72	50.0
Tokyo Mothers(1999)	198	248	-29.0

주 : 지난해 말 기준

자료 : 각 거래소

- 중국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 신설은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인민대표회의 연설에서 정부의 올해 경제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, 이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의 사적 보유를 인정하는 중대한 정책노선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.
-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자국 대형은행들이 국영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창업기업이나 신흥기업에 대한 자금제공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금조달 창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데 기인함.
 - ※ 현재 상하이(上海)증권거래소 A주시장, 선전증권거래소의 A주시장 및 중소기업시장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부과되고 있는 일부 적격 외국인투자가(GFII)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.
- 역사적으로 미국의 Pink Sheets, 런던의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(AIM), 홍콩의 GEM, 도쿄증권거래소의 Mothers 등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은 그동안 낮은 유동성은 물론



회계부정, 증권사기, 내부자거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.

-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서는 아직도 공시부실, 내부자거래, 탈세·횡령·뇌물수수 등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중소형 주식이 거래되는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이 설립될 경우 집중적인 투기 대상처가 될 소지가 있음.
-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신설 시장이 고위험·고수익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에게 잠재력이 높은 다양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Microsoft나 Google 등과 같은 거대기업 탄생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.

■ 외국인 투자자들은 초기단계에서 신설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 제약 받을 가능성이 있음.

- 중국 정부로서는 지난 1990년 이후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1,600개의 기업 이외에도 약 20,000개에 달하는 상장후보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 중국 진출 기업들을 필두로 하여 투자대상 허용범위를 점차 늘려 나갈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시장분석이 요구되고 있음.
- 벤처투자 업계는 이번 전용시장 신설로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베이징(北京) 외곽지역의 Z-Park(中關村)에 소재한 검색엔진이나 하수처리장치, 생체인식시스템, 첨단광고 등 다양한 창업기업들의 지원 및 발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■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논의되어온 상하이 전용시장 설립은 중국 정부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주식상장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감을 확보했다는 자신감 보유를 반영하고 있음.

- 중국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나 빠른 성장 및 고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창업기업이나 신흥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장 달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■ 선전증권거래소에서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춘 이래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시장을 통해 상장되었으며, 현재 이들의 시가총액이 1,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.

-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시장 주가지수가 153% 상승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 주가지수의 상승률(96%)을 크게 상회함.
- 올해 3월 19일 현재 상하이증권거래소 주가지수가 지난해 10월 정점 대비 40% 하락한 데 비해 선전증권거래소 중소기업시장 주가지수는 지난 1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7% 하락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음.

■ 올 4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직전 2년간 누적 순이익 2,000억 위안(약 280만 달러) 이상의 대상 기업 이외에 주주구성 요건 및 공시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